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### 내년 보험산업 성장의 위협요인: 자본강화, 저금리, 기후변화

- 스위스리는 세계경제가 u자형의 회복을 한다고 가정할 때 2010년 보험산업은 재무구조가 건전해지고, 당기순이익이 개선되며, 수입보험료(인플레이션 조정)가 증가하여 전반적인 회복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
  - 금융위기 과정에서 급격히 확대된 보험사의 당기순손실은 2009년 3월 이후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11월부터는 2007년 말의 당기순이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에 힘입어 2010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
  - 세계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.8% 증가하는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국은 각각 2.1%, 8.0%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세계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.1% 증가하며 주요 선진국은 대체적으로 1% 미만의 완만한 증가를 예상
- 그러나 정부의 자본강화 요구,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금지급 상승, 저금리환경은 이러한 회복세를 제약하는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
  - 비교적 건전한 경영상태를 유지해 온 보험사(일부 방카슈어러 제외)에도 부채비율 조정과 자본강화 등이 적용됨으로써 향후 보험사의 투자위험회피 경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성장이 제약 받을 것으로 전망.
  - 또한 매년 증가하는 재난 재해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증가시켜 보험사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
  - 유동성지원을 위한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는 상대적으로 국채 등 장기·안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은 보험산업에게 투자수익 하락을 가져옴으로써 성장에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
    - 저금리 기조는 요구 투자수익률 확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여 보험사는 향후 언더라이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
    - ROE를 유지하기 위해 1%의 투자수익률 하락시 3%의 합산비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(2008년 미국 손보사 대상 분석)
- 한편 손해보험은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당기순손실이 빠른 속도로 축소됨에 따라 2010년에 예견되었던 보험료인상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발표

(Swiss Re 12/1)